

완전한 행복은 이긴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귀라는 영적 무덤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죽여 버리고 영적 무덤에서 석방되어 나와서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앉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부활함을 입었다가 된다

인간의 마음이 곧 신이므로 인간이 어떤 마음을 품으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날 신학 교수나 박사들은 신의 본질을 모르면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본질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神)이라는 것은 바로 영(靈)입니다. 그리고 영(靈)에 대해서는 성경에 '인간의 영'이라고 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 곧 신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더도 덜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말 자체입니다.

흔히 "신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보여요? 안보이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갖하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이 갖을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갖을 하지 못한다고 이 사람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신인 고로 이 사람이 신으로서 귀신이 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신이 아니라면 그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 신이므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간의 마음 즉 신이 바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없애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공산주의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바로 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바로 그 마음이 공산주의를 없애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마음이 보통 사람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이긴자의 마음은 전지전능의 마음이요, 능력이 있는 마음으로 이 우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고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알아야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다' '종교도 없었다' 하는 말을 이 사람이 23년간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신이라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오늘날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을 전부 사람이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닙니다. 불경도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나 불경은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는 이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주장하는 역사가 바로 종교 역사인 고로 영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죽음의 역사인 고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기도하고 예배 보면 종교인줄 알고 있는데 종교라는 것은 바로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이지 죽는 역사, 죽는 종교 단체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죽는 것은 분명히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신인 고로 사방의 신에 의해 죽는 것은 진리의 종교 단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생의 단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종교가 될 수 없고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역사가 바로 종교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종교라면 죄가 무엇인줄 알아야 하며 또한 의가 무엇인줄 알아야 됩니다. 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알아야 그것이 종교이지 죄가 뭔지도 모르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욕



구세주 조희성님

심이 죄라고 써어 있지만 오늘날 종교들은 이제 그대로 죄의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욕심이라고 했지만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 부리는 고로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원죄는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먹은 선악과가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인간 속의 나라는 주체의

식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아는 종교가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선악과'라는 엄청난 사실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진짜 종교를 여러분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을 없애는 방법은

<반대생활>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 유일하게 이 사람이 '나'라는 주체의식을 없애 버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반대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생활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일하기 싫어하면 일을 열심히 하며 '나'라는 것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기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렇게 나라는 주체의식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마귀의 영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마귀가 앉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되는데 이 때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함을 입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라는 영적 무덤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죽여 버리고 영적 무덤에서 석방되어 나와서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앉으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맞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맞지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과일 역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영생을 쟁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자격자는 바로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어야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겨야 하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행복을 영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되어야 가지 사람이 되어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탈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벗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버려야 하며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의 확신을 갖는 마음이요, 희생적인 마음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나 불경에 "너희는 하나님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불심을 품어라"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전에 써어진 내용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품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품으면 인간으로 있다가 죽게 되어 있고 인간으로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강한 마음이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며 끝까지 참고 견디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빼죽 나왔다가 그 다음엔 '바쁘니까 다음에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부단한 노력을 가해서 매일같이 제단을 쌓고 매일같이 감로 이슬성신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희성님의 발자취



언제나 하나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루를 살면서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었다.

한번은 서울 신당동에 산다는 김모씨의 집을 주소도 없이 찾아가간 적이 있었다. 옛날 같으면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그러저럭 찾아 갈 수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주택이 워낙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곳을 주소도 모르고 찾아갔다. 마치 허공에서 뜬구름 잡는 격이라고나 할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늘 바라보이는 영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쪽으로 가라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따라갔던 결과 마침내 그 집을 찾을 수가 있었다.

길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면 바라보이는 영모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해 주셨던 것이다. 그렇게 가다보니 어느덧, 어느 집 대문 앞에 멈춰 서게 되었고, 문패를 바라보니 내가 찾고자 했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김씨는 깜짝 놀라며 "여기로 이사 온 후 집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영모님이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 왔느냐?"며 의아해 했다. 그런데 당시 이 사람은 영모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집으로 올 때 물레 뒤따라 와서는 집을 알아 두었지요."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한 체험과 확신 속에 매사를 사니 한 치의 허점도 없는 온전한 생활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아와 부탁을 하였다. 하루는 어떤 낯선 아주머니가 이 사람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을 털어 놓으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육군 장교라고 밝히면서 "평소 남편으로부터 조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주소도 모르는 곳을 하나님의 신의 인도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 그림 박준구 장로

인격을 믿고 어려운 부탁 말씀을 드리 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며 자초지종을 털어 놓았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군 동기생들의 부인들끼리 친목 도모로 모임을 가져 오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전속 발령을 받고 멀리 갔으나, 아이들 학교 교육 때문에 이사할

형편이 못 되어 아이들과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가끔 한 번씩 다녀가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런데 친목회에 참석했다가 일시적으로 외간 남자와 서로 어울리게 되었는데 마침 게임 중에 잠깐 파트너가 되었던 남자가 그녀의 집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 자기를 자주 차근덕거려 골칫거리라는

것이였다. 그 남자는 영문한 면이 있어 남편이 집에 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속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자꾸만 괴롭히는데, 아무리 말려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였다. 만약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가정 파탄은 물론이거니와 총살사건이 벌어질 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였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조 선생을 찾아왔으면서 "친목회 부인들과도 의논을 해봤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이처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을 조용히 해결해 주실 분은 조 선생님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며 도와 달라고 했다.

그러하여 이 사람이 찾아가서 연극을 해서 그 못된 남자가 다시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일을 봐줘서 아무런 말썽 없이 단념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 사람은 세상 살 때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두루 경험했다. 어떤 때는 아현동에 매장을 두고 젊은 청년들을 고용하여 리어카와 자전거에 비닐로 잔 각종 방식을 포함하여 신앙촌 제품들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에게 일요일이면 의무적으로 전도관에 나가게 하기도 했다.

또, 이 사람은 백라이트 공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그 당시 청계천 도매상에 물건을 조금씩 납품했는데, 한 도매상에서는 절대 이사람 물건을 안 받겠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점포 옆에다가 우리 공장 제품을 파는 점포를 열어 공장도 가격으로 물건을 싸게 팔았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 그 도매상에게 결국 당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도매상이지만 그들도 이문을 불이고 팔아야 하는데 공장에서 직접 파는 가격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소문이 나자 주변에 있는 각 도매상 주인들은 서로 이 사람 물건을 팔려면서 이사람 비위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제품이 청계천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일을 하게 되니 "신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사가 형통하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매사가 안전하고도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게 되었다.*